

전북 삼락농정 실현 본궤도 진입

농생명 분야 공모사업 잇따라 선정... 들녘경영체 육성 등 8건 78억7300만원 확보

전북도는 2017년도 11월중 중앙공모사업에서 들녘경영체 육성사업(9개 시·군, 34.7억원),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고창, 25억원),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익산, 5억원),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부안, 4억원) 등 8개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78억 73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특히, 8개 사업중 6개 사업이 농생명 분야 사업으로 11월중 공모사업을 통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전북도의 삼락농정 실현에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들녘경영체 육성사업(9개 시·군, 34.7억원)은 50ha 이상을 영농하는 들녘경영체(1)를 조직화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 정부지원 미곡종합처리장(RPC), 건조저장시설(DSC)을 대상으로, 농가 조직화 및 재배기술 향상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안바다목장 조성사업(고창, 25억원)은 연안 해역에 인공적으로 바다목장을 조성하여 수산생물의 생태환경조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연안 수산자원을 회복·증강시켜 지속가능한 어장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발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익산, 5억원)은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및 첨단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익산 지역 특화작목 및 유망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 애로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부안, 4억원)은 우수한 종자와 종묘를 농업인에게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장비와 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축제 지원사업(5개 시·군, 0.6

억원)은 농촌축제 기획, 운영, 홍보, 축제 시설 설치, 전문가 컨설팅, 주민 교육 등 농촌축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유학 지원사업(정읍·완주·임실, 1.3억원)은 농촌유학을 지원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발비, 컨설팅·홍보비, 기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설명회 및 대면심사, 현장평가 등에 철저히 대비, 2017년 공모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새만금내부 간선도로망 구축 급물살

개발청, 남북도로 1단계 건설공사 발주... 2022년 개통 목표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 1단계 건설 공사의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난 30일 조달청에 도로공사 발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남북도로는 부안군 하서면에서 군산시 오식도동을 잇는 총연장 26.7km의 주간선도로로, 2023년 완공을 목표로 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며 총사업비는 9,00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에 착공하는 1단계(3·4공구)는 12.7km의 6~8차선 도로로, 2022년 개통을 목표로 5,44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2단계 사업은 총연장 14.0km로 총사업비 3,655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핵심 기반시설인 남북도로

가 완공되면 현재 건설 중인 동서도로와 함께 새만금 내부를 십(十)자형으로 가로지르는 도로망이 구축된다.

남북도로 완공은 산업·연구용지, 국제협력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새만금의 3대 권역이 연결된다는 의미로 공공매립 등 내부용지 개발 추진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북도로 건설 공사에는 12월 예정된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대한전문건설협회전북도회, 건설업체 등 사업관계자 간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전북 지역의 건설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전북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성 기자



크리스마스 꽃 포인세티아 지난 30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실에서 관리사들이 신품종 포인세티아에 크리스마스 장식을 달고 있다. 포인세티아는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한 겨울철에 가장 인기 있어 '크리스마스꽃'이라 불린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도, 복지행정 평가 최우수

전북도는 지난 30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지역복지사업 평가' 중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평가'에서 전국17개 시도중 1위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의 복지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조기 확산 및 성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것으로, 전북도는 타 시도에 비해 여건이 어려움에도 당당히 전국 1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전북의 자존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됐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읍면동에 맞춤형복지 전달망 설치 및 전달인력(3명)을 배치해 찾아가는 복지상담, 복지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지역자원 발굴 및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복지관련 공공 및 민간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의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읍면동이 지역복지의 중심기관이 되어 주민의 다양한 복지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이다.

박철웅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앞으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간지원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강화교육 등을 통해 전북형 복지공공체 모델을 개발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여"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AI 전과차단...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3일 오전 12시부터 일제소독

전북도는 고창군 고병원성 AI 발생이후 추가 신고가 없으나 도내 철새도래지 주변 철새분변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가금농가의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생산자협회, 계열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전북도 자체적으로 일시이동중지를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축산종사자, 가금,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2월 3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및 일제소독을 실시하게 된다.

대상은 3,451개소(농가 1,723, 도계장 11, 사료공장 9, 알가공 8, 차량 17천대)이다.

/김진성 기자

LX 공간정보아카데미, 공간정보 인재 27명 배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간정보아카데미가 공간정보 융·복합 산업 인재 양성의 요량으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LX 공간정보아카데미에서 지난 30일 '제4기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과정' 프로젝트 발표회와 수료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이 과정은 공간정보 관련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해 청년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교육생 27명이 수료했다.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운영되는 이 교육과정은 지난 7월부터 5개월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교육생들은 5개월을 만들어 공간정보산업 현장에서 활용중인 실무기술을 이용해 직접 제작한 신규 사업 아이템을 발표하고 시연했다.

발표된 전기충전소 입지선정 제안시스템, 도심형 지하저류시설 입지분석 시스템, 가뭄분석정보시스템(DAIS), 귀농정보시스템(FARM플렛), 위치기반 마감 상품 알림서비스(COSTOPIA) 등 총 5개 작품은 평가 후 우수작품을 선정해 향후 고용연계가 이뤄진다.

김진수 원장은 "매년 꾸준히 공간정보산업을 이끌 창의적인 인재가 배출돼 기쁘다"며 "수료생들이 원하는 기업에 전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간정보아카데미는 매년 관련 분야의 인재를 배출해 80%이상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道 경제 민주화 속도낸다

시군 공무원·경통원 등 유관기관 참여 워크숍 개최

전북도가 경제민주화 정책의 시군 및 유관기관 확산과 협업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30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교육장에서 경제민주화 워크숍을 벌였다.

워크숍에는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경제교육센터(기획재정부 지정)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

향인 소득 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의 이념적 기반인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도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 간 정책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정책 반영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은 전북도 경제민주화 지원 기본계획안 설명, 타 지자체 정책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조지훈 전북

경제통상진흥원 사회경제지원센터장이 기본계획안이 담고 있는 경제민주화 개념 및 국내외 정책동향, 도민 실태조사 결과, 비전 및 추진과제, 중점사업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경제민주화 선도 지자체인 서울특별시 김유진 공정거래팀장이 서울시 정책 사례에 대해 상생, 공정, 노동 3개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 실천과제와 성과, 법과 제도개선 제안사항을 소개했다.

도 전해성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풀뿌리 경제주체를 위한 신규 시책 발굴 등에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사랑의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 2018 나눔캠페인]
기부자명단

◆ 부안군 하서면

- ▷ 노계마을 292,500원
- ▷ 평지마을 442,500원
- ** 계 735,000원

◆ 임실군 강진면

- ▷ 이목마을 263,000원
- ** 계 263,000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